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교육과정의 항목에 대한 일고

김명광*

요약 한국어 교육과정은 일반적인 교육과정의 하위 분야에 해당하므로 한국어 교육 과정도 일반적인 교육과정의 큰 틀에서 정의되어야 한다. 한국어 교육과정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사회의 사회적 공감감이 형성되어야만 하고 그 설계에 대한 압력이 존재해야 하는데, 국내외 외국인 학습자가 그 규모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학습자들의 배우려는 목적도 매우 다양해짐으로 인해 각각의 목적에 맞는 한국어 교육과정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이미 형성되었다. 사회적 공감과 압력을 통하여 그 설계가 필요한 교육과정의 구성 요소는 이러한 다양한 목적에 적합하게 하위 교육 과정 항목이 구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학문 목적의 교육 목표는 일상생활의 한국어 이외에도, '범전공' 영역, '전공 기초' 영역, 그리고 세부적인 전공과목에서 사용되는 '전공' 영역, 그리고 범학문적 수학 기능 등을 반영하는 교육 목표가 세분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 목표는 영역별로 세분화되어야 하며 '발음, 어휘, 문장, 담화 차원'의 문법 영역이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와 같은 기술 영역 (Skill)] 등급(초급-고급)별로 단계적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 내용도 교육 목표에 따라 명세화되어야 하는데, 예컨대 범학문적 수학 기능 신장을 목표로 하는 경우 대학 강의 듣기, 전공 등에 필요한 담화 표지나 '세미나 토론, 실험 실습, 문헌 연구' 등과 관련된 표현과 절차에 대한 교육 내용이 기술되어야 한다. 역시 '교육 방법, 교육 순서, 교육 시수, 교육량, 교육 평가'도 학문 목적이라는 큰 틀 아래에서 명세적으로 진술되어야 한다.

주요어 한국어 교육과정, 사회적 공감, 압력, 교육목표, 학문 목적, 전공, 명세화, 범학문적

* 대구대, 국제한국어교육학,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운영위원, kimmk0857@daegu.ac.kr

1. 서론

이 글의 목적은 교육과정의 일반적 개념과 특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 교육과정의 하위 범주에 속하는 외국어 또는 제2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과정(이하 ‘한국어교육과정’으로 명칭 한다.)에 대한 특수성에 대해 논의를 하는데 있다.

잘 알다시피 교육과정은 영어로 보면 ‘Curriculum’이다. 이는 라틴어의 ‘쿠레레(currere)’에서 유래된 용어로 ‘달리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달리기’를 할 때 우리는 보통 ‘선수’와 ‘경주로’를 연상할 것이다. 선수의 입장에서 보면 우선 왜 달리는지 하는 달리는 ‘목적’이 있을 것이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선수는 구체적으로 실천할 ‘목표’를 설정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 달리기를 할 때에는 가장 최단거리로 빠른 시간에 종착점에 도달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할 것이다. 또한 달리기가 끝난 후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데, 특히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었을 경우 왜 못하였는지에 대한 자기 ‘평가’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다음 경주에는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것이다. 아울러 경주로는 출발점과 종착점이 있는데, 대회를 주최하는 주최 측에서는 그 ‘경주로’를 선수와 경주 규칙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적합하게’ 만들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육과정도 구축의 목적이 있을 것이요(왜 만드는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인지(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면 왜 그러했는지(평가)를 알려주는 일종의 지침의 역할을 해야 된다. 또한 정책결정자, 학습자, 교사 등의 요구 사항(어떤 절차로, 얼마동안, 얼마만큼)에 적합한 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일종의 설계도면의 역할도 겸한다. 곧 교육과정이란 “왜,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순서와 절차에 의하여, 얼마동안, 얼마만큼 가르치고 평가하느냐에 관한 계획이나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총칭하는 말이다. 이를 달리 말하면 ‘교육 목적,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과목, 교육 방법, 교육 순서, 교육 절차, 교육 시수, 교육량, 교육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로 구조화한 교육 계획 및 운영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2. 한국어 교육과정

1) 개념

한국어 교육과정의 개념을 말하기 위하여 우선 한국어 교육의 총 목적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

① 외국어 혹은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외국인과 해외교포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여 유창하고 정확한 한국어를 구사하고 한국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위는 민현식(2004)에 기술된 내용으로 한국어 교육의 대상, 내용, 그리고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는지를 압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우선 그 교육의 대상은 외국인과 해외교포이다. 먼저 외국인의 범위는 일반 외국인,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들처럼 외국인 국적을 가진 사람이 한국어와 문화를 공부하고자 하는 학습자를 뜻한다. 해외교포는 외국인일 수도 있고 한국인일 수도 있다.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 보통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학습하고자 하는 외국 국적의 학습자를 뜻하지만 해외교포는 국적과 무관하게 부모 중 한 구성원이 한국인인 경우(보통 어머니), 한국어를 제2언어로 배우는 학습자에 해당할 것이다. 또한 제2언어라 함은 공용어로서의 한국어나 또는 계승어로서의 한국어를 말하지만, 대개의 국가가 한국어를 공용어로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계승어 차원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재외동포가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를 배우는 대상으로 한정된다. 하지만 다음 절에서 후술하겠지만, 결혼 이민자나 그 자녀들, 그리고 한국 국적을 가졌지만 한국어를 학습하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 이와 같은 분류 방법으로는 교육의 범위에 포함 되지 못한다. 따

라서 외국인과 재외동포와 같이 국적의 개념으로 분류하기 보다는 “외국어 혹은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려고 하는”의 기술 자체에 이미 그 대상을 염두 해둔 것이므로 단순히 ‘학습자’ 또는 ‘사람’과 같이 일반화시키는 것이 좀 더 나은 듯하다. 다음에 ‘유창하고 정확한 한국어를 구사하고 한국어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라 함은 한국어 교육의 목적을 기술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유창성’은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지만, ‘편안하게, 유려하게, 무의식적으로, 매끄럽게, 한국인의 평상시의 말씨로’¹⁾ 말과 글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고, 정확성은 ‘발음, 어휘, 문장 등의 문법에 맞게’ 말과 글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주목적이다. 이는 국어과 교육 목적과 다른 관점이다. 국어 교육의 목적은 국어 능력을 신장시켜 한국인의 정체성과 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한국어 교육과정은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능력 신장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한편 ‘한국어를 구사하고 한국어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에서 표현 능력(구사)은 ‘한국어’로 이해 능력은 ‘한국 문화’(이해)로 한정 되어 있지만, ‘유창하고 정확하게’의 의미가 이해 능력과 표현 능력을 모두 의미하기 때문에 ‘한국어’ 능력에는 표현 능력 이외에 이해 능력이 ‘한국 문화’는 이해 능력 이외에 표현 능력이 모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이해’와 ‘표현’은 의사소통 능력의 하위 범주이므로 이 문장은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의사소통능력’의 신장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제 위와 같은 개념을 통하여 ‘한국어 교육’의 목적을 수정하면 아래와 같다.

② 외국인 혹은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려고 하는 학습자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침으로써, 유창하고 정확한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 시키는 데 있다.

한국어 교육이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진다면, 한국어 교육과정은 일반적인 교육과정의 하위 분야이므로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야 할 것이다.

1 안현기(2008: 84-96) 참조.

③ 한국어 교육과정이란 ‘외국어 혹은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려고 하는 학습자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침으로써, 유창하고 정확한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육 순서, 교육 절차, 교육 시수, 교육량, 교육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구조화 한 교육 계획 및 운영 프로그램이다.

여기서 ‘교육 목적’을 제외한 이유는 ‘외국어 혹은 제2언어로서의 …중략…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라는 기술 자체가 목적에 해당하므로 생략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어 교육과정의 설계에 대한 필요성은 우리 사회의 사회적인 공감대를 통한 압력이 이미 존재한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 한국어 교육의 수요가 이미 폭발적으로 증가한 국내외 현황과 그리고 그 목적이 매우 다변화되어 가는 현황을 살펴보면, 임시방편적인 교육 방법론의 논의를 넘어서 보다 더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과정 구축을 할 수 밖에 없도록 하는 우리 사회의 사회적 공감대와 압력 요인을 살펴본다.

2) 사회적 공감과 압력

(1) 한국어 교육 수요의 신장과 다변화

1959년에 연세대학교에 한국어 교육기관이 설립되고 미국에서 한국학교, 일부 대학 한국어 과정이 개설되었을 당시에는 교육은 소수의 선교사나 외교관과 일부 현지 학습자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에 대한 필요에 의해서 한국어 교육이 실시되었다. 이 당시는 따라서 필요로 하는 대상에 대하여 교재나 교수목 차원의 설계가 필요했고, 교육이나 교육과정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공감을 형성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한국어교육이나 교육과정을 필요로 하는 국내외 외국인 학습자가 그 규모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학습자들의 배우려는 목적도 매우 다양해졌기 때문에 해당 목적에 맞는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과 요구가 높아진 실정이다.

④ 가. 일반 목적

나. 학문 목적

다. 취업 또는 근로 목적

라. 한국 사회 적응 목적

마. 한국인의 사고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 고양 목적

바. 기타 목적

일반 목적을 가진 외국인 학습자들이란 학문 목적이나 특수 목적과 같이 고정된 의도 없이, 한국의 경제 및 정치 등의 국외 교류나 한류 문화와의 접촉 또는 한국과 관련된 지인들과의 만남과 권유 등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문화 소양 차원에서 이를 배우려고 하는 외국인 학습자들이다. 한국의 경제 규모가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경제 규모의 확산은 국외 교류가 그만큼 많아졌음을 의미하며, 이는 대중매체나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현지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경제 규모의 확산과 더불어, 한국의 문화 수출을 통한 이른바 ‘한류’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것도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게 만든 또 하나의 주된 원인이다. 한류의 확산은 1990년대 이후로 ‘드라마, 연예 프로그램, 영화, K-POP, 애니메이션’ 등과 같은 콘텐츠를 중심으로 그리고 ‘방송, 잡지,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유튜브, SNS, 트위터 등)’을 통해 현지 외국인들에게 전파되었는데, 이러한 대중매체와의 접촉으로 말미암아 외국인들이 자연스럽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학습 차원으로 관심을 갖게 되게 되었다². 그리고 그 수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의 2016년도 지구촌 한류 동호회 현황만 보더라도 한류 동호회가 약 1천 652개가 결성되어 있으며 소위 한류 팬이 6천 939만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이들을 위한 한국어와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교육과정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학문 목적으로 한국어와 문화를 공부하려는 외국인 학습자들이란 주로 대

2 한류라는 단어가 처음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은 1999년 대한민국 문화관광부에서 대중음악의 해외 홍보를 위해 〈韓流-Song from Korea〉라는 이름으로 음반을 제작했을 때였다(장규수, 2011).

학이나 대학원 진학 등을 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 학습자들이다. 이들은 자신의 전공에서 사용되는 한국어와 문화 기능을 배우려고 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국내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들은, 예를 들어 2003년도에 12,314이던 것이 2016년도에 104,262와 같이 8배 이상 성장하였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로 역시 그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대학에 입학하기 위하여 보는 시험 가운데 TOPIK(한국어능력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은 1997년도 처음 시행되었을 때는 2692명에 불과했지만, 2003년도에 1만 2187명 그리고 2015년도에는 20만이 넘어섰고, 이제는 해마다 20만명이 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국외에 약 460³여개에 달하는 한국어 관련 학과나 연구 센터들에서 학문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감안하면,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학문 목적의 한국어 교육과정이 구축되어야 한다.

취업이나 근로를 목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공부하려는 외국인 학습자란, 한국의 산업 현장에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들과, 이미 취업을 한 외국인들에 해당한다. 국내 외국인 근로자는 1988년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한국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도 이후 3D 업종을 비롯한 중소기업이 인력난이 심각해지자 1993년도 우리 정부가 산업기술연수생제도를 시행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였다. 이후 우리 정부는 2003년도에 고용허가제, 2007년도에 방문 취업제 등을 시행하면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는 해마다 계속 증가하였다. 예컨대 외국인 근로자 수가 1993년도에 약 8,000명⁴이었던 데에 비해 2016년도에 약 96만 2천명에 이를 정도로 그 규모가 커졌으며 현재에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특히 고용허가제 제도는 'EPS-TOPIK(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국외에

3 2017년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전세계에 한국어관련학과가 312개이며, 한국어 연구 및 교육 센터 수는 147개로 보고 있다.

4 법무부 1993년도 출입국관리통계연보를 참조하였는데, 산업연수생 제도로 유입된 인원만을 계산하였다. 아울러 불법체류외국인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서 국내 한국 기업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현지 정부 기관이나 민간 한국어 교육 센터에서 시험 대비 한국어를 필수적으로 공부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 적응을 목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공부하려는 외국인 학습자란, 결혼을 통하여 한국 사회에 정착한 결혼 이민자나, 다문화 가정 자녀(국제결혼가정 및 외국인근로자 가정의 자녀)들을 뜻한다. 우선 결혼 이민자들의 경우 2015년도의 통계를 보면 151,608명이며 현재까지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는 1995년도 정부에서 중국 동포 여성들과의 농촌 총각과의 결혼 장려 정책, 2000년대 이후 각 지자체의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프로젝트와 같은 원인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으로 인하여 해외 국가 간의 인적 국제 교류가 급속하게 확대됨으로 인하여 나타난 현상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들은 가족생활, 이웃과의 소통, 자녀 교육, 대중매체의 이해와 같은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학습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과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다문화 가정 자녀⁵도 우리나라의 확대된 인적 국제 교류의 결과로 결혼 이민자 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 가정 자녀가 2000년 대 이후로 해마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예컨대 2016년도의 통계를 보면 2015년도에 비해 20.2% 증가한 99,186명으로 약 10만 명에 이른 것만 봐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역시 이들도 가족생활, 학교생활 적응이나 친구와의 유대 관계를 높이기 위한 한국 사회 적응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요구한다.

한국인의 사고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 고취 목적의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습자 중에는 재외동포가 있는데, 2015년도 통계를 보면 약 7,200,000로 이 수요도 매우 높다.

이 외에도 특정한 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수요도 있는데, 예컨대 재외동포나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한국어나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5 교육부(2006)는 다문화가정을 '우리와 다른 민족,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으로 정의하면서,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근로자가정, 북한이탈주민(새터민)가정을 포함하였으나, 현재는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 근로자 가정자녀만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정책 지원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고취시키려는 목적의 교육, 한국에 장기 여행을 오는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 목적의 한국어, 해외 입양아를 대상으로 한국인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한국어, 통역이나 번역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외교적 업무를 위하여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외국인 등에 대한 한국어 등 다양한 목적의 한국어 수요가 있다.

이와 같이 한국어교육을 필요로 하는 국내외 외국인 학습자가 그 규모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학습자들의 배우려는 목적도 매우 다양해졌다는 점은 각각의 목적에 맞는 한국어 교육과정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2) 국가 차원의 한국어교육과정 구축에 대한 압력

일반적으로 “교육 시행의 기본 구성 요소”⁶가 발현되는 계기적 상황은 우선적으로 “교육과정”이 설계되고 난 후 “교재”가 만들어지게 되고, 다음에 정해진 “교육 장소”에 “교사”가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수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교육의 목적이 절박할 경우, 교육 시행의 구성 요소 중(교사, 학습자, 교재, 교육과정(프로그램), 학습 장소) 하나 또는 몇 가지를 생략하거나 간단하게 기술하여 만들거나, 일반적인 발현 순서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해방기의 국어과 교육과정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해방 후부터 1954년 4월 20일에 문교부령 제35호로 공포된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이 나타나기까지의 약 10년간-더 정확히는 1955년도 제1차 교육과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의 시기-에는, 교육과정을 완전하게 구축하지 않은 채-교수요목 차원의 교육과정

6 이 글에서는 직접적인 교수-학습 활동에 필요한 요소를 “교수-학습의 기본 구성 요소”라 칭하고, 이 구성 요소에 “교사, 학습자, 교재”가 있음을 가정한다. 또한 교육 실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를 “교육 시행의 기본 구성 요소”라 명칭하고, 여기에는 “교사, 학습자, 교재”를 이외에 “교육과정(프로그램), 학습 장소”가 추가된다고 가정한다. 물론 교육 시행의 요소에는 “교재”를 보충해 주는 “교육 자료”나 교사가 교육을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 기자재”(예를 들어 OHP, Projector, 교육용 비디오 등과 같은 기자재)등도 있다. 그러나 “교육 자료”나, “교육 기자재”는 교육의 방법적 측면에 영향을 주기는 하나, 이들이 없다고 하여 “교육”이 실시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교육 자료”나 “교육 기자재” 등과 같은 간접적인 교수-학습 요소는 “교육 시행의 구성 요소”에는 해당하지만, “교육 시행의 기본 요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만 구축한 채-국어과 교육이 실시되었다. 물론 그 이유는 일제 시대의 교육 과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국가 정체성에 대한 명분 때문이었다. 하지만 1945년 해방 당시 문맹률이 거의 80%를 상회한 것처럼⁷ 국민 기본 교육이 사회적으로 절실히 필요한 상태였다. 그럼으로 해서 군정청 학무국에서 교육의 기본 구성 요소인 교과서조차 만들지 않은 채 교육과정의 일부인 교수요목(그것도 내용 중 일부만)만을 제정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⁸ 더구나 교수요목도 이를 완전히 구축하는 데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므로 각 교과별로 가르칠 주제를 열거하는 수준에 불과하였다. 즉 이 시기는 사회적 요구가 절박하여 교육 시행의 구성 요소가 생략되거나, 불완전한 교육과정을 가진 채 실시된 교육인 것이다. 하지만 이 시기의 경우도 비록 교수요목 차원이기는 하지만 그 교육과정은 국가가 공포한 법적 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문서화된 정부 문서의 형태이기 때문에,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부를 수 있다. 물론 현재의 국어과 교육과정도 교육법에 의거 교육부 장관이 정하고 있는 교육과정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법적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규범으로서의 교육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한국어 교육과정의 경우 1959년에 연세대학교에 한국어 교육기관이 설립되고 미국에서 한국 학교, 일부 대학 한국어 과정이 개설되었을 당시에도 교육의 필요(당시의 선교사나 외교관 등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필요)에 의해서 한국어 교육이 실시되었지만, 그 수요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 주도의 교육과정을 구축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초기 시기의 국어과 교육과정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국어과 교육이 교육과정 없이 교육이 시행된 기간이 10년이지만, 한국어 교육은 근 60년이 지나도록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없이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어교육과정은 국어과 교육과정과 달리 매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진 학습자들의 다양성을 그 요인으로 들 수 있

7 김용일(1994) 참조. 한편, 한국교육10년사 간행위원회(1955: 110)에서는 해방직후 남한의 문맹률은 77.8%로 집계되었다.

8 문교부(1958: 126) 참조.

다. 잘 알다시피 국어과 교육과정의 대상자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집단은 동질하기 때문에 학년별로 교육과정을 구축하고 그 교과목의 영역을 비교적 쉽게 정할 수 있지만, 한국어교육과정은 균질한 집단이 아니어서, 국가 수준의 한국어교육과정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앞 절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다양한 변인들을 포괄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 지금까지 한국어 교육과정은 한국어교육기관 특히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센터를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시행되어 왔기 때문에, 국가 수준의 한국어교육과정을 구축한다고 할 지라도 이를 따르는 것보다 기관 별 특성에 맞는 한국어교수요목이 더 학습자의 수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물론 국가 차원에서 그 연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김종섭 외(2010; 2011; 2016)에서의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국립국어원)’, 원진숙 외(2011)에서의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과정’(한국교육과정개발원, 서울교육대학교), 유재택 외(2004)의 ‘재외동포용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 체제 개발 연구’(한국교육과정평가원), 허용 외(2007)의 ‘세종학당 교육과정 개발’(국립국어원)과 등의 연구 성과물은 다양한 목적의 교육과정을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아서 이루어진 연구 성과물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부(2015)는 그 대상이 ‘다문화 가정 자녀’로 한정되어 있기는 하나 교육과정이 법적 효력이 있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교육과정이라 부를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각 교육과정 대부분이 연구 성과에 그친 것이 많다는 점을 볼 때, 국가 차원의 한국어 교육과정에 대한 통일성 있는 설계가 향후 한국어 교육 정책에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당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3) 다양성을 고려한 한국어 교육과정의 구성 요소

앞 절에서 우리는 다양한 목적을 가진 학습자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한국어 교육과 그 교육과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압력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사회적 공감과 압력은 각각의 목적에 적합한 하위 교육 과정 항목을 구축함으로써 구체화된다. 예를 들어보면 학문 목적의 외국인 학습자에게는 졸업 할 때까지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학문을 학습하기 위한 방향으로 일련의 항목들이 연관성 있게 구축되어야 한다. 곧 학문 목적 학습자들에게 요구되는 한국어는 일상적인 상황이나 대학 생활에서 사용되는 한국어 이외에도,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범전공’ 영역(교양 차원의 공통 교과에 대한 이해와 표현), 자신의 전공에서 두루 사용되는 ‘전공 기초’ 영역, 그리고 세부적인 전공과목에서 사용되는 ‘전공’ 영역, 그리고 ‘강의를 듣거나 발표하기, 보고서 작성하기, 시험 준비나 토론과 토의와 같은 내용’과 같은 범학문적 수학 기능⁹ 등을 이해하거나 표현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인데,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교육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거칠게 기술해보면 아래와 같다.

⑤ 가. 대학 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킨다.

나. 범학문적 수학 기능에서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킨다.

다.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범전공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킨다.

라. 자신의 전공에서 두루 사용되는 전공 기초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킨다.

그런데 위와 같은 목표는 다시 영역별로 세분화되어야 한다. 그것은 의사소통 능력이 ‘발음, 어휘, 문장, 담화 차원’의 문법 영역이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와 같은 기술 영역(Skill)과 같은 다양한 영역들에서 나타나는 이해 능력과 표현 능력의 총합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의사소통 기능 중 ‘말하기’와 관련된 목표는 아래와 같이 각각 기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⑥ 가. 자기소개, 문의하기, 상담하기, 면접하기¹⁰와 같은 대학 생활에 필요

9 범학문적 수학 기능이란 대학에서 강의를 듣거나 수업 활동(토론, 발표 등) 등에 두루 필요한 기초 기능들을 의미한다. 이는 특정한 전공에서의 강의나 수업 활동에만 필요한 기능이 아니라 대학 전체의 전공에서 전반적으로 필요한 수학 기능이다. 아울러 이는 대학 전반에서 필요한 상위 인지 기능으로 전공 학습에 필요한 도구 기능의 학습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각 전공의 공통적인 내용 학습과 구별된다. 한편 범전공 의사소통 능력이란 내용적 측면에서의 능력으로 각 전공에서 가르치는 내용 중 공통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 이해와 표현 능력을 의미한다.

10 대학 생활에서 자기에 대한 소개, 그리고 도서관 이용하기, 교과목 신청 등과 관련된 문의하기, 교수 및 학교생활에 대한 상담, 그리고 취업과 관련된 면접하기 연습 등은 대학 생활에서 기초적으로 필요한 기능들이다.

한 표현 능력을 신장시킨다.

나. 설명하기, 조사하기, 인터뷰하기, 토의하기, 토론하기, 발표하기와 같은 수업에서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킨다.

다. 대학 교양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을 사용하여 발표할 수 있다¹¹.

라. 사회학 전공에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주장하기 표현(예: ‘변화될 수 있다’, ‘규정된다’ 등)를 사용하여 토론을 할 수 있다.

⑥은 학문 목적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의 일부분인 말하기 능력 가운데 각각 하나씩을 대표적으로 들었다. ⑥가.는 대학 생활에서 주로 사용되는 말하기 표현을, ⑥나.는 범학문적인 수학 기능에 필요한 말하기 기능 표현¹²을 ⑥다.는 대학의 교양 수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발표 능력을 ⑥라.는 자신의 전공(여기에서는 사회학)에 자주 사용되는 표현을 활용한 토론 능력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이러한 의사소통 능력은 ‘발음, 어휘, 문장, 담화 차원’의 문법 영역이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영역으로 세분화되어 기술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교육 목표는 등급(초급-고급)별로 단계적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단계적 교육 목표의 설정은 학습의 효율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학습의 목적은 전공과 관련된 기술(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을 익히는 데 있으며, 이러한 전공 학문 명세적인 목표(Academic-specific)가 설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목적을 한 번에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정해진 시

11 대학 교양에서 자주 사용된다는 것의 의미는 도구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내용으로서의 기능이다. 김유미·강현화(2008: 8)에서 보면 특정 학문분야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학문 분야에 걸쳐 폭넓게 나타나는 학술 기본 어휘와 같은 것을 뜻하는 데, 이러한 어휘를 예로 들면, “사고, 논리, 목적 방법, 철학, 기술” 등과 같은 대학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어휘가 여기에 해당한다.

12 정희정·곽지영(2015: 225)에서는 학문 목적 말하기 기능에 대하여 ‘비교하기, 장단점 말하기, 나열하기 이유 말하기, 발표 시작하기, 의견 제시하기, 자세히 설명하기, 발표 마무리하기, 빠르게 말하기(중급1), 정의와 분류하기, 설명 요청하기 및 의견 묻기 자료 설명과 부연 설명하기, 요약 정리하여 말하기, 비교 대조하여 말하기, 동의 및 반박하기, 논거 및 예시 들어 말하기, 발표하기, 토론하기(중급2), 발표와 토론, 화제 제시하기, 내용 전개하기 덧붙여 설명하기, 마무리하기, 발표하기, 입론하기, 확인질문하기, 반론하기, 토론하기(고급)과 같이 중급과 고급의 교재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들은 학문 내용 자체에 대한 기술보다 학문을 학습할 때 필요한 도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범학문적 수학 기능에 해당한다.

간 안에 단계적으로 학습이 가능한 양의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에 개인별인 차이는 있지만 보통 그 학습 시간은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시간과 대학 4학년 간 공부하는 시간을 합하여 대략 5년 남짓이다. 이 유학생들의 목적은 이 한정된 시간에 외국인 유학생은 일상생활의 의사소통 기능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의사소통 기능을 익혀야 하는 학문적인 목적을 달성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외국인 학습자의 경우에도 단계별로 학습 목적에 맞는 정밀하게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교수하는 효율성의 문제가 대두된다. 이와 관련하여 김명광(2016)에서의 '어휘 영역'의 단계별 기술에 대하여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1단계에서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기초적인 어휘 학습의 목표가 설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2,000개 정도의 '고빈도어' 학습에 집중되어야 한다. 빈도수가 2,000수준의 어휘군의 성격은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과 관련된 어휘들로, 1년이란 기간 안에 질적인 측면을 고려한 어휘 학습의 양이 대략 1,000개의 어휘에 해당하므로 이는 2년 정도의 학습 어휘량에 해당한다¹³. 그런데 이러한 양의 '고빈도어'는 전공 텍스트나 대화 어휘 중 약 80%의 어휘를 커버하는데¹⁴. 80% 어휘 커버율을 가지고는 전공 텍스트나 대화의 이해와 표현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커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의 교양 수준 정도에 해당하는 '학문 어휘'를 더 공부해야 하는 데, 이는 1년 정도의 학습 어휘량에 해당한다. 이 학문 어휘는 이 수준은 대략적으로 TOPIK 5급이나 6급에서 언급하는 어휘들로,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문화, 예술 등 사회 제 영역과 관련하여 학문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데 필요한 어휘이다. 이는 대학 수준으로 볼 때 1학년의 대학 교양 어휘와 같이 기초적 학문 수업에 두루 쓰이는 공통 어휘로, 전공

13 김창구 번역(2012: 17-18) 참조.

14 80% 커버율은 학자마다 75~85%의 폭을 가지고 있어서 이 글에서는 80%이라고 설정하고 논의를 진행한다. 커버율이 유동적인 것은 학자마다 대상 자료와 자료의 양, 그리고 어휘 조사 방법의 차이(형태소 단위 조사, 단어 단위 조사, 레마 단위 조사, 어군 단위 조사)에 따라 그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김창구 번역(2012: 21-30), 민경모(2014: 195-212)를 참조하기 바란다. 한편 후술하는 학문 어휘와 전공 어휘 등도 학자마다 커버율이 다르기 때문에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각각 90%, 95%로 커버율을 고정시킨다.

텍스트나 대화 어휘 중 약 90%를 커버한다. 하지만 90%의 어휘 커버율은 전공 텍스트나 대화를 이해하거나 표현하는 데 있어서, ‘추론 방법, 사진, 교사(또는 교수)의 지도’ 등 가용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학습 도움 방법을 활용하여야만 한다¹⁵. 따라서 전공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전문 어휘(외국인 유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전공 어휘)에 대한 공부의 필요성이 더 필요하다. ‘전문 어휘’란 특정한 전문적인 영역에서 사용되는 어휘로서 예컨대 지리학을 전공하는 외국인 유학생이라면 전문 어휘에 지리학 어휘군(대기, 생태, 온실, 빙하, 지형, 토양 등)이, 한국어교육이라 하면 교육 어휘군(교육과정, 평가, 전이, 제2언어, 중간 언어 등)과 같은 세부 전공별 어휘 부류에 해당한다. 이 어휘 부류는 해당 전공과 상관이 없는 학습자들에게는 저빈도 어휘에 해당한다. 즉 지리학 영역에서는 ‘교육과정, 전이, 제2언어’와 같은 어휘는 저빈도어이며, 한국어 교육 영역에서는 ‘대기, 생태, 온실’과 같은 어휘가 저빈도어이다. 이러한 전문 어휘를 공부할 경우 그 수준은 문맥적 추론이나 교사(교수)의 도움을 받아 전공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¹⁶. 다만 전공 토론과 같이 표현 능력이 요구되는 경우는 좀 어휘에 대한 심층적 학습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생산적 어휘(표현 어휘)의 경우 한 어휘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완전히 학습해야만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세부 전공에서 사용되는 전공 어휘 또는 전공 고유 명사 등에 대한 학습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는 총어수의 4%¹⁷에 해당하는 데 누적 계수로 보면 약 99%에 해당하는 것으로 99%가 의미하는 바는 전공 토론이 가능하게끔 해 주는 수준을 뜻한다. 이는 빈도수에 의거한 어휘 학습의 경우 고급으로 갈수록 학습해야 할 어휘가 급격하게 많아지는 것과 대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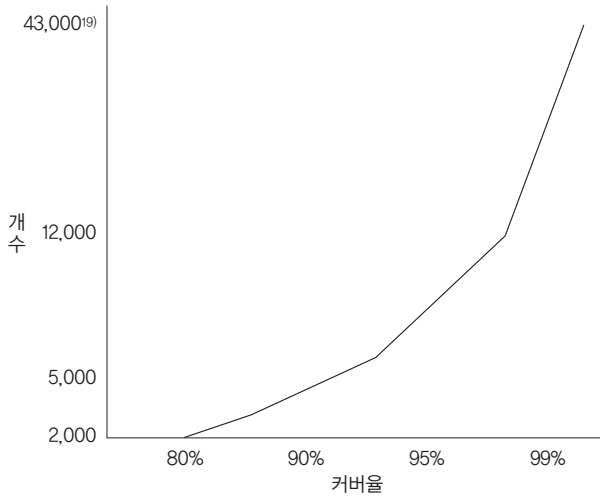
⑦ 빈도수와 커버율(빈도수 중심 어휘 학습)¹⁸

15 관련 논의는 김창구 번역(2012: 144-198)을 참조하기 바란다.

16 학습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문맥추론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입력되는 총어수의 95% 이상을 커버하고 있어야 한다. ...생략...(위의 책: 116).

17 Laufer(1992: 126-132).

18 위의 예는 김창구 번역(2012: 9-22)에서 제시된 통계를 이 글에서 도표화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어휘의 학습에 대한 단계적 목표가 설정되어야만 정해진 기간 동안 외국인 학습자들의 학습의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다¹⁹⁾.

- ⑧ 고빈도 어휘(80%) → 학문 어휘(10%) → 전문 어휘(5%)
 - 의미 초점 학습 수준
 - 사전과 자료집 참조 전략
- 약 2000 어휘 약 700어휘 약 1,000어휘
- 저빈도어 특정 전문분야 고유 어휘(4%)

19 효율적인 어휘 학습을 위해 '초급-중급-고급'의 어휘의 수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하는 연구는 초급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최근에 논의가 되어왔다. 우선 초급 수준(TOPIC 1,2급)의 어휘의 수준이 대략 2,000개 내외라는 것은 TOPIC 평가 목표에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후에는 해당 수준의 어휘가 얼마만큼 되어야 하는가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최근 들어 학문 목적의 어휘나 전공 어휘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는데, 이중 양적 어휘량에 최근에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물에 강현화(2014: 2-49, 2015: 1-28)가 있다. 이 연구들에서 중급 어휘를 3,855개 고급 어휘 4,950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선정의 근거는 일반 한국어 말뭉치의 반도, 한국어 교재와 한국어 능력시험 말뭉치의 빈도 및 범위, 한국어 교재 주제 검토, 그리고 전문가 평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휘들의 양이 외국인 학습자들의 시간적 제한성과 학문 및 전공 어휘의 학습의 필요성 비교해 보았을 때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⑨ 가. 1단계: 빈도수 2000 정도의 고빈도 어휘를 이해하고 이를 표현할 수 있다.

나. 2단계: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범전공 어휘 700개 수준의 어휘를 이해하고 이를 표현할 수 있다.

다. 3단계: 자신의 전공에서 두루 사용되는 전공 어휘 1,000개 수준의 어휘를 이해하고 이를 표현할 수 있다.

라. 4단계: 세부적인 전공 과목의 어휘를 이해하고 이를 표현할 수 있다.

이 절에서 학문 어휘와 전문 어휘 그리고 세부적인 전공 어휘가 무엇이나에 대하여 그리고 그 어휘의 양이 얼마 만큼에 해당되느냐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는다. 이는 향후 이와 관련된 논문에서 명확하게 밝혀져야 되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교육 목표가 영역별 그리고 단계별로 이와 같이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명세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은 교육 목표에 따라 교육 내용이 더 세분화되어야 하는데, ⑤라.를 예로 들어 ‘교육 내용’이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를 살펴보겠다. 이를 위해 이해영(2004)의 논의 중 일부를 들어본다.

⑩ 가. 담화표지 및 표현

- 내용 간섭: 강의 중간에 다른 내용이 자주 삽입된다.

- 담화 표지의 사용: 강의 흐름과 관련되는 담화표지 및 표현이 사용된다. 이들 표지는 강의 내용의 전개나 수강생들의 이해 및 수업 참여를 유도, 확인하는 기능을 한다.

- 구어적 표현 사용: ‘해 보니까’, ‘근데’ 등의 구어적 축약형과 ‘안으루’, ‘보시믄’, ‘그리구’와 같은 구어적 변형이 많다.

- 시제의 혼용: 과거에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표현을 위하여 현재 시제로 표현하고, 그러다가 다시 과거 시제로 말을 이어가는 경우가 흔하게 발견된다.

- 절의 연속성: 반말체나 후행절이 생략된 채로 몇 개의 절이 연속적으로 연결된다. 이는 절과 절 사이의 휴지나 강의자의 표정 등을 통해 추측된다.

나. 문체적 특징

- 추상적인 표현 사용: 예를 들어 ‘-적’을 빈번히 사용하여 확정적인 태도로 서술하기보다는 다소 추상적이고 덜 분명한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
- 완곡한 표현 사용 -피동형의 사용이나 ‘-을 수 있다’ 등의 완곡한 표현이 두드러진다.
- 인과관계 문체 사용: 예를 들면, ‘문학사적 거론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 지닌 역사적 상대성 때문이다’에서처럼 결과를 먼저 제시하고 원인을 밝히는 서술 방식을 취한다.
- 복잡한 문장 구조 사용: 명사구 내포문을 사용한 복잡한 문장 구조가 자주 나타난다. 가령, ‘~가 확인될 수 있음을 앞에서 말한 바 있다’, ‘조건들이 매우 빈약함을 볼 수 있다’ 등이 자주 사용된다.

다. 영역별 문체

- 사회학 영역: 정의를 내리거나 용어를 해설하는 문체가 자주 사용된다. (‘~는 ~를 말한다’, ‘-는 것을 말한다’, ‘~를 ~이라고 한다’), /구체화를 위한 예시를 많이 사용한다. (‘~도 그 예가 될 수 있다’, ‘~의 예로는 ... 등이 있다’,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 규범에는 법률과 도덕 그리고 관습이 있다’에서처럼 접속 조사보다 접속 부사 ‘그리고’를 사용함으로써 강조할 부분을 부각한다.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규정된다는 것이다’,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에서처럼 ‘-는다는 것이다’의 사용으로 주장을 강조적으로 전달하는 태도를 보인다.
- 법학 영역: 당위 설명이나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강한 표현이 사용된다. /대명사보다는 명사 사용이 많은데 이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서술 의도와 관계된다. /분석 대상 자료가 법적 권리와 의무를 기술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종결은 대부분 ‘하여야 한다’, ‘할 필요가 있다’ 등의 강한 표현이 많다. /사회학 영역에서처럼 ‘~이라 함은 -는 것을 말하며’, ‘~를 ~이라고 한다’와 같은 정의를 내리는 문체가 자주 사용된다. 문어적인 특징이 많이 보인다. /주제 관련 어휘 및 전문 용어 사용 빈도가 매우 높다.

라. 학습 기술과 학습 활동

- 강의 듣기(들으면서 노트 필기하기, 질문하기 및 보충 설명 요청하기, 관련 문헌을 탐독하여 빠진 정보 보충하기)
- 세미나, 토론 참여(들으면서 노트에 메모하기, 질문하기 및 보충 설명 요청하기, 상대방의 질문에 응답하기, 동의나 반의 표명하기, 발표하기, 발표물(문서, 프레젠테이션) 작성하기)
- 실험, 실습(지시 사항 이해하기, 질문하기 및 재설명이나 내용의 명시화 요청하기, 인터뷰·설문지 이용한 자료 수집하기, 분석하기, 결과 기록하기)
- 문헌 연구(읽고 이해하기·분석하기·논평하기·속독·정독하기, 시각적인 정리 방식 활용하여 메모하면서 읽기, 완성된 글로 요약 정리하기)
- 도서관 참고 자료 활용(목차·색인을 활용하여 글의 내용 짐작하기, 사전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도서 분류 체계 이해하기, 관련 문헌 조사를 위하여 온라인 도서 목록 검색하기, 필요한 자료 찾아내기)
- 보고서, 논문 작성(관련 문헌 탐독하기, 자료 수집·분석하기, 논거 수집하기, 제시하기, 요약·부연·종합하기 등)

위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능에 대한 기술이다. ⑦가., 나는 대학 강의에서 자주 사용되는 담화표지 및 문체적 특징을 ⑦다.는 전공 영역별로 자주 사용되는 문체, ⑦라.는 강의 수강에 도움이 되는 학습 기술과 학습 활동을 말하고 있다. 이 내용의 요지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일반 대학 강의와 전공에 대한 범학문적 수학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기능에 대한 교수-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⑤라.의 교육 목표를 함의하는 교육 내용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⑪ 가. 대학 강의 듣기에 필요한 담화 표지를 익히고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나. 자기의 전공에서 자주 사용되는 담화 표지를 이해하고 이를 표현할 수 있다.

다. 강의 듣기, 세미나 토론, 실험 실습, 문헌 연구 등과 관련된 표현과 절차 등을 익히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라. …….

이 밖에도 ‘교육 방법, 교육 순서, 교육 절차, 교육 시수, 교육량, 교육 평가’도 학문 목적이라는 큰 틀 아래에서 명세적으로 진술되어야 한다. 예컨대, 학문 목적의 교육 방법이 실제 생활과 유사하게 구현된 상황에서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CLT)의 교육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전문 분야 지식을 학습할 때 필요한 ‘내용 중심의 언어교수법’(Content-based Instruction: CBI)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교육 방법’에 대한 명세화이다(이미혜, 2003)²⁰. 또한 어휘 목표의 단계별 설정(‘일상생활 어휘→학문 어휘→전공 어휘→특정 전공 어휘’)과 어휘량의 제시(5년 이내)는 교육 순서와 교육량에 대한 명세화이다(김명광, 2016). 또한 대학 강의 유형에 대하여 언급한 오선경(2007), 박진욱(2016)에서 언급한 학문 목적의 교육은 ‘대학 강의 절차’의 유형에 따라 ‘교육 절차’를 달리 해야 한다는 기술과 관련이 있다.

⑫ 가. 읽기체 설명식, 회화체 설명식, 발표-토론식(오선경, 2007)

나. 전공 강의 방식(박진욱, 2016: 100)

도입	일반형	프로젝트형	플립(Flipped)형
전개	일반형	시범 수업형	자유/공개 토론형
	안내된 실습형	프로젝트형	사례연구형
마무리		일반형	

또한 아래와 같이 학문 목적 말하기 과제에 대한 평가는 ‘학교 시설물 이용에 대한 평가, 강의 수강하기에 대한 평가, 토론하기’ 등의 평가와 같이 대학 생활과 전공 강의에서 필요한 것을 측정해야 한다는 것은 평가 목표와 관련되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학문 목적에 맞는 항목들과 관련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데, 아래의 여러 연구에서 수행된 항목들에 대한 평가 내

20 내용 중심의 언어교수법은 제2언어 환경에서는 효과적이지만 외국어 환경에서는 여러 여건을 고려한 ‘잘 계획된’ 교과과정이 필요하다. 학습자의 언어 능력이 부족하면 언어 학습뿐만 아니라 해당 과목의 내용 학습조차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직업적인 목적의 한국어가 ‘대학 내의 교과목’으로 운영될 경우, 중급 이상에서의 내용 중심의 한국어 교육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이미혜, 2003).

용은 이러한 학문 목적을 달성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성취도 평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⑬ 학문 목적 말하기 평가의 과제

연구자	과제(기술, 평가 항목)
한상미(2009)	초급—구술면접 받기, 학교 시설물 이용하기 중급—부탁하기, 상담하기, 공식적인 공지하기 고급—강의 수강하기(내용 확인, 보충 설명 요청), 토론하기(요약, 동의, 반박, 이견 말하기)
박광진(2010)	사진 설명·묘사하기 / 신문 기사 요약하기 / 찬반 의견 제시하기
권수현(2013)	특정 주제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기 / 특정 목적 수행 상황에서 알맞은 발화하기 특정 상황에 대해 이야기 구성 및 발화하기 / 특정 상황 가정 후 역할 수행하기
심재경(2014)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질문 답하기 / 상황이나 자료에 대한 의견 표현 및 주장하기 상황이나 문제에 대한 의견 표현 및 주장하기 / 글을 읽거나 대화를 요약하여 설명하기
김상경(2015)	낭독하기 / 강의 듣고 말하기 / 토론에서 의견 말하기 / 자료보고 발표하기
박선윤(2015)	대학 생활 이야기하기 / 요약하여 설명하기 / 자신의 의견 말하기 / 발표하기
권순용(2015)	인터뷰 / 역할놀이 / 토의하기 / 발표하기 / 그림이나 자료 활용

3. 결론

한국어 교육과정은 일반적인 교육과정의 하위 분야에 해당하므로 한국어 교육과정은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한국어 교육과정이란 ‘외국어 혹은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려고 하는 학습자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침으로써, 유창하고 정확한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육 순서, 교육 절차, 교육 시수, 교육량, 교육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구조화한 교육 계획 및 운영 프로그램이다.

한국어 교육과정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사회적 공감감이 형성되어야만 하고 그 설계에 대한 압력이 존재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국내외 외국인 학습자가 그 규모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학습

자들의 배우려는 목적도 매우 다양해짐으로 인해 각각의 목적에 맞는 한국어 교육과정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이미 형성되었다. 하지만 국가 차원의 한국어 교육과정에 대한 통일성 있는 설계가 아직 마련되지 않아 향후 한국어 교육 정책에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당면 과제를 말하였다. 사회적 공감과 압력을 통하여 그 설계가 필요한 교육과정의 구성 요소는 이러한 다양한 목적에 적합하게 하위 교육 과정 항목이 구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학문 목적의 교육 목표는 일상생활의 한국어 이외에도, ‘범전공’ 영역, ‘전공 기초’ 영역, 그리고 세부적인 전공과목에서 사용되는 ‘전공’ 영역, 그리고 범학문적 수학 기능 등을 반영하는 교육 목표가 세분화 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 목표는 영역별로 세분화되어야 하며(‘발음, 어휘, 문장, 담화 차원’의 문법 영역이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와 같은 기술 영역(Skill)) 등급(초급-고급)별로 단계적으로 기술되어야 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 내용도 교육 목표에 따라 명세화 되어야 하는데, 예컨대 범학문적 수학 기능 신장을 목표의 경우 대학 강의 듣기, 전공 등에 필요한 담화 표지나 ‘세미나 토론, 실험 실습, 문헌 연구’ 등과 관련된 표현과 절차에 대한 교육 내용이 기술되어야 한다. ‘교육 방법, 교육 순서, 교육 시수, 교육량, 교육 평가’도 학문 목적이라는 큰 틀 아래에서 명세적으로 진술되어야 한다. 예컨대 교육 방법의 경우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 ‘내용 중심의 언어교수법’이 설정되어야 하며 교육 시수와 교육량(어휘)도 ‘일상생활 어휘→학문 어휘→전공 어휘→특정 전공 어휘’와 같이 단계별로 설정되어야 하며 그 어휘량은 최대 5년 이내에서 학습할 수 있는 범위로 세밀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교육 평가도 ‘학교 시설물 이용에 대한 평가, 강의 수강하기에 대한 평가, 토론하기’ 등과 같이 대학 생활과 전공 강의에서 필요한 것을 측정해야 한다. 이 글을 마치기 전에 지면상 여러 다양한 목적에 맞는 항목들을 다 살펴보지 않았다는 점을 한계로 인정하며, 추 후 논고에서 각 목적 간의 부합하는 항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자 한다.

교신: 김명광(대구대학교 국제한국어교육과 교수)(kimmk0857@daegu.ac.kr; 전화: 053-850-6874)
Correspondence: (Professor, International Korean Language Education, Daegu University)
(kimmk0857@daegu.ac.kr, phone: 053-850-6874)

2017.06.12 접수, 2017.06.20 수정, 2017.06.23 게재확정

참고문헌

[참고 사이트]

2016년 외국인고용조사 결과(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3/4/index.board)
2016년 지구촌 한류현황(<https://www.kf.or.kr/?menuno=3472>, <http://ebook.kf.or.kr/>)
결혼이민자 현황, 통계청 국가주요지표(<http://www.index.go.kr/>)
고용허가제 고용동향, 통계청 국가주요지표(<http://www.index.go.kr/>)
고용허가제의 의의와 연혁, EPS(<https://www.eps.go.kr/>)
교육과정 원문 및 해설서(<http://ncic.kice.re.kr/nation.dwn.ogf.inventoryList.do#>)
교육과정(<http://ncic.kice.re.kr/mobile.dwn.ogf.inventoryList.do>)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교육부 사전정보공표(<https://www.moe.go.kr/boardCnts>)
다문화 학생 현황, 2016년 교육기본통계 보도자료, 교육통계서비스(<http://kess.kedi.re.kr/>)
외국인고용조사 결과,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http://www.index.go.kr/search/search.jsp>)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 국가기록원(<http://www.archives.go.kr/>)
유학생 현황, 통계청 국가주요지표(<http://www.index.go.kr/>)
재외동포현황, 국가주요지표(<http://www.index.go.kr/>)
지역별 한국학과 및 연구소 개설 현황, 한국학 중앙 연구원(<https://ksnet.aks.ac.kr/statistics/main.do>)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법무부(www.hikorea.go.kr/ptimg/moj_sts/1993/index.html)

[참고 문헌]

강현화, 2014, 한국어교육용 중급 어휘 선정에 대한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제40권,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강현화, 2015, 한국어교육용 고급 어휘 선정에 대한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제41권,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교육부, 2006, 다문화가정 품어 안는 교육 지원 대책, 교육과학기술부.

- 권수현, 2013, 학문 목적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능력 평가 도구 개발 방안,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순용, 2015,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말하기 평가 도구 개발 연구,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명광, 2016, 외국인 유학생들의 적정 어휘학습량에 대한 일고, 국제어문 제69집, 국제어문학회, 289-307.
- 김유미·강현화, 2008, 학문목적 학습자를 위한 학술 전문어휘 선정 연구 -한국어, 문학, 경영학, 컴퓨터공학 전공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19권 3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24.
- 김상경, 2015,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말하기 능력 평가 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용일, 1994, 미군정하의 교육정책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중섭 외, 2010,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국립국어원.
- 김중섭 외, 2011, 김중섭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 국립국어원.
- 김중섭 외, 2016,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활용 점검 및 보완 연구, 국립국어원.
- 문교부, 1958, 문교개관.
- 민현식, 2004, 한국어 표준교육과정 기술 방안,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한국어 교육 제15권 1호, 51-92.
- 박광진, 2010, 학문 목적 학습자 대상 교실 말하기 평가 방안 연구, 배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선운, 2015, 학문 목적 한국어 말하기 평가 도구 개발 방안,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진욱, 2016, 학습역양 기반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과정 연구: 전공 진입 전 과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심재경, 2014, 학문 목적 한국어능력시험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현기, 2008, 영어 발음의 정확성(accuracy)과 유창성(fluency) 구분에 대하여, 외국어교육 연구 제11권, 서울대학교, 84-96.
- 오선경, 2007, 학문 목적의 한국어 듣기 교육을 위한 강의 담화 분석, 한국어 교육 제18권 2호, 199-220.
- 원진숙 외, 2011,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한국어(KSL) 교육과정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개발원, 서울교육대학교.
- 유재택 외, 2004, 재외동포용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 체제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미혜, 2003, 직업을 위한 한국어 교육 연구-교육 현황 및 "비즈니스 한국어" 개발 검토-,

- 한국어 교육 14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27-253.
- 이해영, 2004, 학문 목적 한국어 교과과정 설계 연구,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한국어 교육 제 15권 1호, 137-164.
- 장규수, 2011, 한류와 스타시스템, 스토리하우스.
- 정희정·곽지영, 2015,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과정의 개발과 수정의 실제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의 대학한국어과정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43권, 229-256.
- 한상미, 2009, 학문 목적 한국어 말하기 평가 연구 -대학 입학 전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제20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7-238.
- 허용 외, 2007, 세종학당 교육과정 개발 연구, 국립국어원.
- Laufer, B., 1992, How much lexis is necessary for reading comprehension?, in Arnaud and Béjoint, 126-132.
- Nation, I.S.P., 2011, Learning Vocabulary in Another Language. 김창구 역, 2012, I.S.P Nation의 외국어 어휘의 교수와 학습, 소통.

A study on the Items of Curriculum of Korean For Foreign Learners

Myoung Kwang Kim*

Abstract_As the Curriculum of Korean For Foreign Learners is included in under the general Curriculum, it should be defined in a large frame of education. Social consensus must first be formed. The pressure for the design shall exist in order to establish a Korean language course. Not only has foreign learners increased the extent to which they are not expected, but the goal of the learner is very diverse. Social pressure has already been formed for the needs of the Korean language courses for each purpose. If the situation is such, Components of the curriculum should be constructed of sub-curriculum's items for these various purposes. For example, the educational objectives of the Academic objectives should be subdivided into classes in addition to the Korean language of everyday life, and the educational objectives that reflect the fields of 'cross-major areas, basic major areas and major subjects, and cross-learnig functions, which are used in detail in the detailed subjects. These objectives should be subdivided into areas of interest as grammatical domains such as pronunciation, vocabulary, sentence, and skills of speaking dimensions, speaking, speaking, and writing according to levels of learners. Training content should also be documented according to the educational objectives. For example, the objectives to developing learning skills for cross-academical domains should be reinstructed in the contents specific to study expressions and procedures for listening university's lecture, major, etc. or seminar, experimental Lab and literature, etc. Educational methods, education routines, education hours, education assessment, and educational assessment should also be explicitly stated under the large framework of academic objectives.

* Daegu University, Professor, International Korean Language Education, kimmk0857@daegu.ac.kr

Keywords_Curriculum of Korean, social consensus, social pressure, educational goals, academic goals, major, specialization, cross-academic